

# 천전리 암각화의 기하학적 무늬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시론

주 현 식\*

## 1. 암각화에 관한 과학적 인식론으로서 기호학적 접근

암각화(Rock Art)에는 인류 초기 제작된 수많은 도상적 재현과 여타의 그래픽 기호들이 남겨져 있다. 암각화는 선사 시대인들의 아카이브라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왜 인류의 조상들이 바위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 했는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다각도로 수행되어 왔다.

암각화의 연구에는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 예컨대 오랜 기간 동안 그려지거나 조각된 형상물들의 층위가 여럿 중첩되어 존재한다. 또한 암각화를 구성한 컨텍스트, 문화적 환경이 전체적으로 사라졌다. 침식, 마모가 거듭되었기 때문에 지탱하는 암석들이 만들어질 당시의 전체적 형상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으리란 법이 없다는 점 또한 암각화 연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기존 고고학적 연구는 일정 부분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암각화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안한 캐나다 기호학자 보위삭(P. Bouissac)은 암각화에 대한 기존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진화론적 시각의 침윤과 재현주의를 지적한다.<sup>1)</sup> 구석기 예술에 대한 초기 해석은 대부분이 전쟁 혹은 사냥과 같은 복잡한 행동의 문서적 기록의 일부로서 암각화의 기능을 주목하였다. 혹은 마술 제의, 토테미즘의 발생에 대한 신화적 설명, 꿈과 죽음, 부족 조직 간의 대립 같은 키워드로 암각화를 설명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암각화의 그림과 상형들이 고대 현실의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바, 바위에 새겨진 이미지들의 스타일 분석이 기존 연구의 강조점이었다. 예를 들어 수직의 페니스 형상의 해석에서 성교의 생물학적 생식력 같은 의미가 기존 고고학에서는 중시된다. 하지만 보위삭에 따르면 수직의 페니스 형상은 그보다 비유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그것을 유사 문법적 구조의 한 어휘로 볼 경우, 능동성이나 지배적 요소 혹은 행동이나 액션을 자질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고전 문법가들이 문장의 주부와 술부를 연결하는 동사로 불렀던 연결동사(copula)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해석 상의 난맥이 초래된 이유에 대해 보위삭은 암각화 이미지들의 형태적 특징 연구에 주력하는 기존 고고학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진화론적 시각에서 원시인들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기존 고고학적 연구들에서 간과한 것은 원시인들도 현대인들의 문자 체계처럼 상징적 위상과 관계를 접한 것들을 화용론적 맥락 속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형상적인 심미적 가치를 단순히 표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시인들도 잠정적으로 정교화된 인지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타인 나아가 공동체적 구성원과 교환하는 소통 능력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기존 재현주의 위주의 고고학적 연구는 무시하여 왔다.<sup>2)</sup>

현존하는 상형문자의 절대적, 상대적 연대 추출과 관련된 간접적 증거들은 극소하게 희미하다. 해서

\* 강남대 국문과

1) Paul Bouissac, "Introduction : A challenge for semiotics", *Semiotica* 100:2/4, 1994, p.100.

2) 여기서 진화론적 시각이란 “글쓰기”가 고도의 문명이 성립되면서 출현했다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선사 시대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글 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본고에서 말하는 진화론적 시각은 신경 과학을 기반으로 교육학, 인지 과학 등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화론적 시각”과는 그 함의가 다르다.

언제부터 그림을 수단으로 글쓰기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글쓰기가 알파벳 같은 문자 체계뿐만이 아니라 한자의 상형 문자처럼 시각적 차원을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암각화를 무언가를 재현하는 이미지 형상이 아닌 통사적으로 조직된 시각적 텍스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암각화를 설계된 시각적 텍스트로 보는 데 기호학적 접근은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기호학은 차이와 체계의 학문이다. 기호학적 가정에 따르면 암각화의 그림 형상들은 인지적 내용을 구조적 대립의 패턴으로 분절함으로써 시공간에 걸쳐 의미들을 소통시키는 도상(icon)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암각화의 “기하학적” 무늬들은 “형상적” 이미지들보다 덜 관심을 받아 왔다. 본고의 목적은 천전리 암각화를 대상으로 기하학적 무늬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호학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하학적 무늬들의 체계성을 탐구하는 데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본고는 그 시론으로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천전리 암각화의 기하학적 무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해독하기보다 이해를 향한 첫 걸음으로 소통적 위상의 개연성을 탐색하고자 기하학적 무늬의 형식적 속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려 한다.

## 2. 기하학적 무늬의 기존 연구

암각화의 기하학적 무늬들은 덧, 무기, 장식물 같은 인공물의 재현 혹은 도식적 자궁, 직립의 남근 같은 성적 도식화된 상징, 장식적 마크, 몸의 일부분으로 보통 해석되었다. 그래서 기하학적 무늬들은 풍요 제의 또는 에로틱한 행위의 시각적 재현이나 시뮬레이션과 연관되는 것으로 흔히 가정되었다.

그럼에도 암각화의 기하학적 무늬에 대해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국외의 몇 가지 시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엠마누엘 아나티(E. Anati)는 기하학적 무늬를 ‘심리문자’로 지칭한다. 그는 알타미라의 일명 ‘지붕 모양’이라고 불리는 긴 회랑에 붉은 색으로 그려진 기호들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특별한 연상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보는 이의 피와 정신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심리문자는 깊고 깊은 정신 현상 속에서 놀라운 정도로 연상 반응과 감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인간이 의식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머릿속 어딘가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무언가의 본질을 표현한다고 아나티는 보고 있다.<sup>3)</sup>

루이스 윌리엄스(J. D. Lewis-Williams)는 기하학적 무늬를 ‘엔토픽한(entopic) 환각적 현상’으로 설명한다. 가장 밝은 곳에 있게 된 사람들은 점, 격자무늬, 지그재그, 집합적 쇄사슬 모양, 구불구불한 물결 선 등 기하학적인 시각적 지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이 같은 지각은 인간의 신경 체계와 연관되어서 환한 불빛이 있는 곳에 처해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이다. 기하학적 무늬는 안구에 압력을 가했을 때의 자각 광감(自覺光感)인 안내(眼內) 섬광의 생리적 현상인 바, 신의 계시 같은 종교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 ‘엔토픽(entopic)’이라는 단어는 ‘시야 내부에 있는’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강도 높은 빛이 자극되었을 때 자극들이 눈 자체와 대뇌피질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신경적 현상을 그것은 지시하고 있다. 역으로 말해 샤먼의 빙의 같은 종교적 현상이 경험되어 대뇌피질의 시각 담당 피질을 자극하는 경우, 기하학적 무늬 등의 시각적 지각이 나타나게 되고, 암각화의 기하학적 무늬는 그러한 엔토픽한 환각적 상태에서 새겨졌다는 것이 윌리엄스의 주장이다.<sup>4)</sup>

3) 엠마누엘 아나티 저, 이승재 역, 『예술의 기원』, 바다출판사, 2008, 428~429쪽.

4) J. David Lewis-Williams, *The mind in the cave: consciousness and the origins of art*, Thames & Hudson, 2004,

알렉산더 마샷(Alexander Marshack)은 암각화의 기하학적 무늬를 달력 표기, 다양한 형태의 천문학적 계산을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하학적 무늬는 농경 사회에서 태양, 달의 이동과 계절의 순환과 관련하여 달의 주기, 일 년의 주기, 천체의 움직임을 공간적으로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의 시간성에 대한 기보(notation)라는 것이 마샷의 주장이다. 예컨대 물결무늬나 뺨 무늬는 시간의 통과, 달의 주기를 표기한 것이고, 동그라미가 중첩된 것은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등의 계절의 통과를 표기한 것으로 마샷은 분석하고 있다.<sup>5)</sup>

프랑세스코 드에리코는 고대의 기하학적 무늬를 인공적 기억 표기법으로 본다. 인류의 조상은 현재의 우리보다 평균 연령이 더 낮았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 인류보다 세대 간의 거리가 더 짧았을 것이고 공동체적 필수적 정보는 전달되기 전에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프랑세스코 드에리코는 세대와 세대 간의 공동체적 기억과 정보 전달 및 보존을 위해 인공적 기억 시스템의 기보법이 추상적, 기하학적 무늬로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sup>6)</sup>

암각화 연구에서 기하학적 무늬에 대한 연구는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 무시되었다. 기하학적 무늬에 대한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형상적 그림들과 지속적 관계 속에서 기하학적 무늬들이 보통 배치된다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그것들의 상호 위치와 조합을 연구하려는 체계적 시도는 이루어진 바 없다. 기존 주류 연구에서 형상적 패턴의 예술적 상징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의 잠재적 서사를 구성해왔지만 동일한 방법론이 기하학적 무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 무늬도 발화 언어 상의 의미를 코드화하는 패턴화된 시각적 기호로서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래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것은 기하학적 무늬 역시 문자, 대본, 텍스트로서 글쓰기 양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 3. 기하학적 무늬의 문자로서의 가능성

쓰기 체계는 문화적 진보와 인식적 전진의 지표로서 전통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명료한 분절적 발화 언어가 존재하고 그것을 전사할 수 있는 쓰기 시스템이 문명화, 도시 건설에 따라 발명된다. 뒤이어 텍스트에 대한 읽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소통 양식상의 발전 순서다. 페니키아 알파벳이 전형적 예일 것이다. 그러나 발화 언어→쓰기→읽기의 위계론적 진화론적 관계는 쓰기 체계가 개발되고 유지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검토해 볼 때 성급한 단순화이며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보위삭(P. Bouissac)은 비판한다.<sup>7)</sup>

그래서 선사 시대에도 쓰기 체계가 발명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보고된 첫 쓰기 체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거래나 종교 행위 등에서 경제학적, 종교적 처리 과정을 표기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 추상적 기호라는 점을 상기해 보자. 암각화의 기하학적 무늬 역시 보위삭의 지적처럼 문자의 맹아적 형태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쓰기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선사 시대에도 이는 가능했다고 보위삭은 설

pp, 126~127.

5) Alexander Marshack, "Cognitive Aspects of Upper Paleolithic Engraving", *Current Anthropology*, Vol. 13, No. 3/4 (Jun. - Oct., 1972), pp. 445~477.

6) F. D'Errico, "Notation versus Decoration in the Upper Palaeolithic: a Case-Study from Tossal de la Roca, Alicante, Spain",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Vol. 21, 2. 1994, pp, 185~200.

7) 아래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Paul Bouissac, "What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emergence of writing?" In [http://www.semioticon.com/virtuals/proto\\_historic\\_signs/prerequisites\\_writing.pdf](http://www.semioticon.com/virtuals/proto_historic_signs/prerequisites_writing.pdf)

명한다. 직립 보행하게 되면서 선사 시대인들은 손으로 대상을 정확히 부여잡고서 이 행위를 시야와 조화시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쓰기와 읽기에 요구되는 선, 각도, 커브를 포함한 고도의 기하학적 패턴의 시각적 차별화를 위해 해부학적 민첩성, 신체 생리학적 가능성이 현대인만큼 선사인들도 갖추고 있었다.

둘째, 쓰기 체계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호들을 지시대상에 관련시키고, 기호들의 집합을 복합적 의미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며, 개별적 기호들을 그것과 구별되는 추상적 타입의 기호들로 연관시켜 인지하는 것이 글쓰기 작업에는 요구된다. 거대한 암각화를 작업하는 데에는 장기간의 계획과 작업 기억 등의 인지적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을 것이다. 수많은 그림들을 암각화의 표면에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구성 작업은 일련의 시각적 통사(syntax)문의 구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기호들의 상호적 관계에서 정보를 추론하는 등 글쓰기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을 선사인 역시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원시인 사냥꾼을 생각해보자. 동물의 궤적을 해석하고, 최소의 흔적 기호로부터 동물들의 나이, 상태, 움직임의 방향 같은 조건들을 수집하는 원시인들의 사냥 능력은 현대인의 읽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인지적이다. 기하학적 무늬를 초기적 형태의 문자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시인들도 이렇게 인지적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셋째, 쓰기를 위한 언어학적 전제 조건 또한 검토될 수 있다. 해부학적 증거와 사회학적 좌표의 층위에 근거하여 약 200,000년 전에도 음성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물론 보통 우리는 원시인의 그러한 음성적 커뮤니케이션이 웅얼거리는 소리였을 것이라고 성급히 결론을 내린다. 원시적 웅얼거리는 소리나 제스처에서 통사적 질서를 갖춘 현대인의 담화로 발화 상의 소통이 진화한다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보위삭은 이를 오류라고 보며 그러한 진화론적 관점을 지지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비판한다. 보위삭에 따르면 오히려 원시 언어도 구별되는 소리와 그러한 소리들의 조합을 많이 구비하였다.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그리고 동물, 식물, 인공물, 토지, 기상학, 자연적 사건 등 환경에 관련된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 원시적 발화 역시 분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구별되는 소리의 체계가 바위 표면 상에 그래픽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넷째, 쓰기는 공동체적 사회적 조직, 구성을 전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쓰기 체계는 주로 거대 도시의 정착과 정치적 제국의 경계 맥락 하 교환 거래와 종교적 처리의 기록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이 상식적 견해다. 하지만 구술 발화의 그래픽적 등가물이 좀 더 작은 단위 인구의 사회학적 맥락에서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도외시킬 수 없다고 보위삭은 지적한다. 예컨대 선사 시대 인구가 확장되고 지리적으로 분산되면서 첫 그룹이 두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뉘어진다면 첫 그룹의 발화 언어 역시 분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된 코드를 갖는 문자 언어와는 달리 음성적 말에 의존하는 발화 언어는 지속적으로 유동적이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첫 그룹에서 분기된 두 하위 집단의 공동체적 정체성은 위협을 받았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해서 영구적 물질에 새겨진 기호와 상징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기간의 가계와 관련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쓰기 양식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존한다. 특히나 추상적 기하학적 무늬는 대상이나 개념과 관련하여서 음절 분절과 좀 더 복잡한 음성적 조합을 대신하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암각화에 대한 분석은 형태론으로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래서 외적 사물의 재현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암각화의 해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인간 환경을 둘러싼 물질을 관념의 실체화로 보는 수동적 견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sup>8)</sup> 때때로 물질은 관념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동작용(agent)일 수 있다. 문화의(of culture) 실증주의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8) Andrea Vianello, "Can archaeology's 'ritualistic and symbolic artefacts' be interpreted semiotically?" In Ibid.

위한(for culture) 해석학적 동작주로서 우리는 암각화의 실천적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암각화의 기하문이다. 자연적 대상을 재현했을 수도 있는 형상적 이미지들과 달리 선사인들이 맹아적 글자로 기능하는 추상적 기하문자의 스크립트(script)를 통해 친족, 공통 신화, 제의 등의 사회적 드라마를 문화적 변동과 관련하여 재구성하고 재창조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어야 한다.

#### 4. 기하학적 무늬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의 원칙

따라서 상징적 시스템의 복잡성과 사회의 복잡성 드러내는 기호 체계로서 후대에 쓰기 체계로 발전되었을지도 모르는 기하학적 무늬의 해석에 언어학에서 출발한 기호학적 접근은 어느 정도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기하학적 무늬의 해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의 원칙을 잠정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첫째, 극단적으로 광범위한 시대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된 끝이 열린 패턴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둘째, 때문에 폐쇄된 집합 내 기호 뭉치들(corpus)의 동시대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타입(type)의 구별을 위해 개별적 토큰(token)의 집합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타입은 존재론적으로 개념적인 것이라 이해된다. 타입은 구체적 경우에 적용된 수많은 개별 기호, 토큰을 갖는다. 타입과 토큰의 검토는 기하학적 무늬의 패턴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그러한 벡터들을 반복 검토한다.

다섯째, 바위 상의 구획된 공간적 맥락을 점검한다. 특별한 장소에 배치된 기하문 그리고 다른 기하문과 관련해 한 기하문을 위치시키는 위상학적 맥락(topographical context)은 텍스트 조직의 한 요소이다.

여섯째, 구획된 공간 내에서 형상적 이미지와 기하적 무늬의 반복적 연관 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일곱째, 일종의 스크립트로서 잠재적 텍스트가 기능할 수 있는지가 테스트되어야 한다.

---

9) Paul Bouissac, "Probing late prehistoric Scandinavian petroglyphs" In [http://www.semioticon.com/virtuals/proto\\_historic\\_signs/scandinavian\\_petroglyphs.pdf](http://www.semioticon.com/virtuals/proto_historic_signs/scandinavian_petroglyphs.pdf)

## 【참고문헌】

- 아나티, 엠마누엘 저, 이승재 역, 『예술의 기원』, 바다출판사, 2008.
- Bouissac, Paul, "Introduction : A challenge for semiotics", *Semiotica* 100:2/4, 1994, pp, 99~107.  
 , "What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emergence of writing?" In  
 [http://www.semioticon.com/virtuals/proto\\_historic\\_signs/prerequisites\\_writing.pdf](http://www.semioticon.com/virtuals/proto_historic_signs/prerequisites_writing.pdf)  
 , "Probing late prehistoric Scandinavian petroglyphs" In  
 [http://www.semioticon.com/virtuals/proto\\_historic\\_signs/scandinavian\\_petroglyphs.pdf](http://www.semioticon.com/virtuals/proto_historic_signs/scandinavian_petroglyphs.pdf)
- D'Errico, F, "Notation versus Decoration in the Upper Palaeolithic: a Case-Study from Tossal de la Roca, Alicante, Spain",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Vol. 21, 2. 1994, pp, 185~200.
- Lewis-Williams, J. David, *The mind in the cave: consciousness and the origins of art*, Thames & Hudson, 2004,
- Marshack, Alexander, "Cognitive Aspects of Upper Paleolithic Engraving", *Current Anthropology*, Vol. 13, No. 3/4 (Jun. - Oct., 1972), pp. 445~477.
- Vianello, Andrea, "Can archaeology's 'ritualistic and symbolic artefacts' be interpreted semiotically?" In [http://www.semioticon.com/virtuals/arch\\_behaviour/index.html](http://www.semioticon.com/virtuals/arch_behaviour/index.html).